

재일본 친목회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소멸과정

김창민(전주대)

1, 머리글

제주도에서 재일교포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 마다 마을 입구에는 비석거리가 있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비석들은 재일교포의 공덕을 기리는 것이다. 재일교포들은 마을 도로 개설이나 포장, 전기가설, 마을 창고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에 재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금을 마을에 기부한 사람들도 있다. 마을에서는 이들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비석을 세운 것이다.

재일교포들은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자신의 고향 마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는 제주인들의 일본 이주 역사, 재일교포의 심리, 제주도와 일본의 경제적 위상, 제주도 마을의 범주 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제주도는 일본과 가까워 일제시대부터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으며 4.3을 계기로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오사카의 이쿠노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같은 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상호 긴밀하게 교류하였으며 고향 마을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재일 교포들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고향마을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돌아가야 할 곳이기때 마을 사람과의 교류는 유지되어야 했고 마을 발전에 기여를 할 필요도 있었다.

제주 출신 재일 교포 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마을 단위로 친목회를 조직한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제주 출신 재일교포의 수가 마을 단위 친목회를 조직할 정도로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도와 일본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지리적으로 제주도와 일본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4.3으로 인한 이주와 1960년대 이후의 밀항으로 인한 이주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제주 사람들이 마을을 사회 조직의 핵심적인 단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제주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을 마을을 기준으로 가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이 제주 출신 재일교포들이 마을을 단위로 친목회를 조직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마을의 사회 구조와 제주 문화의 이해에 재일교포 친목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재일교포 친목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일교포 사회를 분석해야 하지만 이런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시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창민의 연구(2003)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재일본 친목회와 마을 사이의 관계를 마을 개발 사업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일교포 친목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재일교포 친목회를 마을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재일교포 친목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친목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친목회의 관점에서 재일교포 친목회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소멸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재일본달밭마을 친목회이다. 재일본 달밭마을 친목회는 1966년에 조직되어 1991년까지 유지되었다. 이 친목회는 설립부터 소멸되기까지의 회의록과 재정기록부를

남기고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헌 자료는 정보의 공백을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재일본 달밭 친목회의 형성 과정

달밭마을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부터이다.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일본에는 군수산업이 활성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1920년대 들어서면서 일제는 산미증산 계획에 착수하여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농민은 농업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어 새로운 생계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서 일본은 일본으로의 노동력 유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1922년 도항조절제도를 폐지하였다. 달밭마을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정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일본에 이주한 달밭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 노동자였지만 점차 상업과 공업으로 진출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부를 기반으로 1930년 마을에 토지 1,184평을 사서 기탁하는 일을 하였다. 이 때 토지를 기부하는 일에 참가한 사람들은 24명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오사카의 이쿠노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친흥회'라고 하는 친목회를 결성하게 되었다(김창민 2003 참고). 친흥회 회원들은 휴일이면 모여 고향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향 소식을 서로 나누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친흥회는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기도 하고 마을 회관 건립에도 기부를 하였다. 또한 마을 포제를 지내던 췌단방앗 사서 기부하기도 하였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친흥회는 2차세계대전과 함께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본격화되자 전쟁을 피해 제주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마을로 돌아가 친흥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으로 달밭마을 사람들이 다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4.3과 한국전쟁 때문이다. 4.3과 전쟁을 피해 달밭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오사카로의 이주가 많아졌다. 이들이 친목회를 조직하게 된 것은 달밭마을의 전기가설 공사가 계기를 제공하였다. 당시 제주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마을별로 전기 가설 공사를 하였다. 달밭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의 재정 상태가 빈약하여 전기가설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마을을 방문한 재일교포가 일본으로 돌아가 마을 전기 가설을 돕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에는 '전기가설 기성회'가 조직되었고 재일교포 사회에는 '재일본 달밭마을 전기가설 후원회'가 조직되었다. 후원회에서는 개인별로 기부를 받아 115만엔을 모금하여 전기가설 공사 대금으로 회사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오사카에 거주하던 11명과 동경에 거주하던 2명이 1966년 재일본달밭친목회를 결성하였다. 설립 당시의 회칙은 다음과 같다.

재일본달밭친목회 회칙

제1조 본회는 재일본달밭친목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재일본 달밭 교포로서 조직한다.

제3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깊이 하며 상호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정월에, 임시총회를 7월에 개최할 것으로 정한다.

제5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역원을 설치한다. 회장 1명, 부회장 겸 총무 1명, 재무감사 1명

제6조 본회의 역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하고 역원 개선은 정월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제7조 본회의 역원회는 매년 4회 개최한다.

제8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신년회, 2. 야유회, 3. 기타

제9조 본회는 회원에 경조 재난이 있을 때에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의를 행한다.

1. 결혼식 회원 5,000 가족 3,000
2. 장제 회원 10,000 가족 5,000
3. 소기/대기 회원 3,000 가족 3,000
4. 재난(화재, 사고중상 등) 10,000

제10조 이 회의의 구제사업은 그 때의 사정에 따라 역원회를 개최하여 상의 결정한다.

제11조 회원 및 비회원이 본국으로 귀환시에는 기념품(시가 2,000 정도)을 증정한다.

제12조 본국에서 방일 빈객이 귀국시에는 기념품(시가 2,000정도)을 증정한다.

제13조 본회에 입회시에는 본회의 기본금으로서 3천엔 내지 5만엔까지 기부한다.

제14조 본회의 회비는 연간 3,000엔으로 정하며 2기 분할하여 납부한다.

제15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임시기부금으로써 충당한다.

제16조 본회의 기본금의 이자는 일본 5전으로 정하고 회장, 부회장, 재무감사의 연대 책입제로 하며 6월 단위로써 현금 결산한다.

제17조 본회의 회원은 1년간 회비를 체납할 때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18조 본회의 회원이 탈퇴할 때는 기납의 기부금 및 회비는 반환 안한다.

제19조 본회칙을 개정할 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동이 필요하다.

이 회칙은 친목회의 목적이 친목 도모와 상호부조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년 7월에 야유회를 가지기로 하였으며, 회원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향 마을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회원이 귀국할 때나 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기념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는 친흥회의 목적이 마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즉, 재일본달발친목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호부조가 일차적인 목적이었던 것이다.

재일본달발친목회의 운영은 크게 기본금과 회비로 구성되었다. 기본금은 회원 가입시에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3,000엔부터 50,000엔까지 출연하도록 하였다. 우선 창립회원은 25만엔을 기본금으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1977년 7월까지 총 27명이 기본금을 출연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금은 회장이 1년간 사용하고 매월 1푼5리씩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회의 재정적 운영에 기여하였다. 회비는 설립 당시에는 매년 3,000엔으로 하였으나 총회 회식비와 야유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1973년에는 6,000엔으로 인상하였다. 원칙적으로 회비는 회원이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총회나 야유회에 참석하는 사람만 납부하였다.

3. 친목회의 성장과 달밭마을과의 관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달밭마을에서도 일본으로 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밀항자의 증가는 재일본달밭친목회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3년까지 정기총회에 참가하는 사람의 숫자는 12명 정도였으나 1974년에는 그 수가 19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회의록에는 1975년 1월에 2명, 1975년 7월에 2명, 1976년에 4명, 1977년에 4명이 신규로 가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 신입회원은 기존 회원과 이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기존 회원들은 일제시대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장년층과 노년층이었던데 비해 밀항을 온 사람들은 20대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회원의 증가는 친목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는 회원들의 나이나 경력이 비슷하였으나 새로운 회원은 기존 회원들과 나이나 사회적 경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이들과 함께 친목회를 운영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회원들의 주도로 청년회 조직이 추진되었다. 청년회를 조직하면 신입회원들은 청년회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존 회원들은 기존 회원대로 모일 수 있어서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1973년 정기총회에서는 청년회 조직 문제가 안건으로 대두되었다. 이 논의에서 '25세 이상의 청년을 7월 임시총회에 초청해서 친목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입시키자'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해 7월 임시총회에서는 청년회 조직위원을 두 사람 선임하고 이들이 청년들의 가입을 적극 촉구하기로 하였다.

신입회원이 증가하면서 기존 회원들은 자신들의 자녀와 이들을 연결시키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기존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신입 회원들을 친목회에 안착시킬 필요성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친목회 활동에 참여시키려는 필요성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다. 즉, 1976년 정기총회에서는 일본에서 출생한 후대들의 가입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7년 정기총회에서는 '2세들에게 연락해서 적당한 시기에 간담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77년 임시총회에서는 2세들이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친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씨의 아들도 가입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임시총회에서는 2세 청년들을 적극 가입시키기 위하여 모임의 장소도 2세들의 취향에 맞는 더 화려한 곳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1978년 정기총회에서는 청년부 설립 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포 2세와 밀항해 온 젊은 회원들로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임원진을 중심으로 청년회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하였다.

친목회가 활성화되던 이 시기에 재일본 달밭친목회는 마을 개발 사업에도 적극 개입하였다. 우선 1972년부터 1974년 사이에 진행된 마을 창고 건립은 친목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마을에서는 절간 고구마를 저장할 창고가 절실하게 필요하였으나 창고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친목회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친목회는 고영주 회장의 주도로 고향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건립 비용 중 중 2,315,000원을 부담하였다. 당시 마을에서 부담한 금액은 616,000원이었다. 창고 건립이 마을과 친목회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고 비용 문제가 해결된 이후 장소 문제가 대두되었다. 마을에서는 집입이 편리한 곳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친목회에서는 마을 가운데에 건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의견 차이로 결국 마을에서 원하는 장소에 건립을 추진하던 추진위원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결국 친목회가 요구하는 장소로 창고 부지가 결정되었다.

1978년에 추진된 마을 진입로 공사에서도 친목회는 중요한 재정적 후원을 하였다. 당시 총 공사비가 24,000,000원이었으나 정부 보조금은 4,900,000원에 불과하였고 마을 모금액도 3,300,000원에 불과하였다. 마을에서는 친목회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친목회는 개인별로 모금을 하여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였다. 이 때 모금에 참가한 회원은 29명으로서 거의 모든 회원이 참가하였다.

이 시기 재일본 달밭친목회는 상당한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었다. 회장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맡아 1975년까지 10년간 유임하였으며 그를 중심으로 친목회가 운영되었다. 또한 마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때도 친목회의 대표를 마을에 보내어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회의록 작성과 재정에 대한 기록 및 보고도 체계적으로 유지되었다. 밀항자의 증가는 친목회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친목회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되어 재일본 달밭친목회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4. 친목회의 소멸 과정

재일본달밭친목회는 1979년을 기점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1975년까지 회장을 맡던 고영주씨가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후 2년마다 회장이 바뀌었다. 회장들은 나름대로 친목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고영주씨를 대신하여 친목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도 있었다. 1979년 신임 회장은 친목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회원들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연회를 열었다. 이 비용은 기본금을 초과할 정도로 커서 결국 총회 후 기본금이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 이후 친목회 운영에 자금 압박이 심해져 1981년부터 회비를 10,000엔으로 인상하게 되었으며 참가하는 회원의 수도 10명선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재일본달밭친목회의 위축은 크게 3가지 원인에 기인하였다. 첫째는 회원수의 감소이다. 1970년대 이후 일본에 온 밀항자들은 일본의 외국 노동자 정책에 의해 감시가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였다. 1980년 이후 일본에서 밀항자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면서 강제 송환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즉, 198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밀항자들이 강제 송환을 당하여 친목회는 다시 1970년대 이전으로 회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친목회에 교포2세들의 참여가 저조하였다는 점이다. 교포1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2세들의 친목회 참여는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1세와 2세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교포1세들은 제주도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인식하였고 달밭마을과 정서적 유대가 강하였으나 2세들은 제주도를 돌아가야 할 곳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도 강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모 세대들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친목회에서 2세들이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게 느끼게 된 것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친목회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였다. 더구나 밀항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이들이 교류할 사람들도 크게 줄어들었다.

세 번째 원인은 제주 경제의 활성화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달밭마을은 하우스 농사로 고소득을 올리게 되었다. 제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밀항자들은 더 이상 일본에서 노동자로 남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었고 자발적인 귀국자도 늘어나게 되었다. 마을의 입장에서 마을 개발사업을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생겨남으로써 더 이상 친목회에 재정적으로 의존할 필요성도 생기지 않게 되었다.

친목회의 퇴조는 모이는 사람의 수에서도 확인된다. 1979년 23명이 참가하여 절정을 이

루었던 친목회는 1980년과 1981년에는 11명, 1983년과 1984년에는 8명으로 줄어들었고 1986년과 1987년에는 모임을 가지지 못하다가 1990년에는 4명만 모이게 되었다. 결국 1991년 모임을 마지막으로 친목회 모임은 해산되었다.

1980년대 재일본달밭친목회는 야유회 모임은 중단하고 정월 모임만 유지하였다. 그리고 모임 후 식사비와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재정운영만 하였다. 1979년 이후 회의록은 1984년과 1988년만 작성되어 있다. 이 시기 동안 친목회는 사업이나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1년에 한번씩 모여 식사나 하는 모임으로 성격이 변화된 것이다.

5. 맺음말

제주사람들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일제시대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특히, 4.3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도일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은 일본 사회에 적응하여 재일교포 사회를 형성하였으며 마을 단위로 친목회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친목회는 재일교포들의 우의를 다지는 역할을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마을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재일본달밭친목회는 재일교포의 수에 따라 성장과 쇠퇴를 경험하였다. 재일1세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과 교포들 사이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결성한 친목회는 1970년대 이후 밀항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규모가 성장하였다. 그리고 친목회의 수적인 증가는 마을 개발 사업에 적극 관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밀항자의 증가는 친목회 구성원들 사이의 이질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여 청년회 조직 등의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밀항자들과 연배가 비슷한 교포2세를 친목회에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밀항자들의 강제 송환과 자발적 귀국의 영향으로 결국 친목회는 쇠퇴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의 귀국으로 다시 친목회는 재일1세의 모임으로 돌아갔으며 재일1세의 사망 등으로 그 수가 줄어들어 결국 모임이 해체되었다.

재일본달밭친목회의 성쇠는 구성원 수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구성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일2세를 가입시키는 것과 새로운 이주자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지만 재일2세는 달밭마을과의 정서적 친밀감의 부족으로 친목회에 가입하기를 꺼려하였으며, 새로운 이주자들은 일본의 정책 변화와 제주 경제의 성장으로 대부분 귀국하였다. 결국 재일본달밭친목회는 재일1세들의 모임으로 회귀하였으며 이들의 노령화와 함께 소멸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